

# 2021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4. 27. 15시	화상회의	10명/10명	2명	

- 시청자위원 불참자(0명) 명단 :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성기홍(보도국장), 김가희(심의실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시청자권익 보호 (침해구제)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	-	3	10	-	-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보도	이번달에 좋은점은 직접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터뷰를 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한 점이다. 칭찬해주고 싶다. 하지만 앞으로도 직접 공연, 예술창작 현장의 모습을 인터뷰와 함께 많이 기획기사하여 현장예술인의 모습을 담아줬으면 한다. (정경모위원)	문화 리포트는 뉴스채널 편성상 금,토,일요일에 리포트를 제작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13건의 리포트를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등이 많이 줄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적극적으로 방송에 노력하겠습니다. <21.3월 조치>	'21.3월
보도	3월21일자 봄날 이용 늘어나는 킷보드... 필수 안전 수칙은?이란 주제로 방송되었습니다. 홍정원 기자의 전동킷보드 안전 수칙 설명과 함께 하단에 자막 처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안전 수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른쪽에 자막 처리를 해주었으면 더 좋겠습니다.(천경숙위원)	전국 도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보행자 안전 우선"이란 내용으로 4월 17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는 도심 속 안전속도 5030에 관하여 내용이 아주 잘 전달이 되어 좋았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재연하여 위험을 알리고 화면 하단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시청자입장에서 알기 쉽게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픽이나 CG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월 조치>	'21.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 '해당사항 없음'

안 건 내 용	조치(개선)내용	비고
-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해당사항 없음'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해당사항 없음'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모든 시간대 뉴스 진행자들이 너무 엄숙한 자세이고, 진행이 단조로운데, 보다 생동감 있고, 흥미 있는 포맷 등을 새롭게 시도했으면 한다. 진행자들이 때로는 분위기를 밝고, 유머스럽게 만든다면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뉴스 진행이 단조롭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포맷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거운 뉴스에는 무거운 분위기나 진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머지 뉴스거리에서는 지금처럼 딱딱할 필요는 없다. CNN과 같은 뉴스 진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생동감 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들을 시도했으면 싶다.(권혁남위원)	정통 뉴스와 연성 뉴스를 전할 때 다른 분위기로 전하고자 합니다만 아직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각 뉴스프로그램별 코너 진행의 경우는 코너 특성에 맞게 발성이나 표정 등 표현의 방식을 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아나운서들의 진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4. 16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147회:34년간의 나눔 봉사는 내 운명 관련 보도, 34년간 어려운 이웃들께 음식 나눔과 및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따뜻한 말을 나누고, 봉사로 이끌고 있는 이상기 씨에 관한 이야기로 매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봉사 나눔의 실천이 동 미니다큐의 취지와 매우 잘 맞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특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가르침 보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끼로 위로를 하는 부분은 부모의 입장에서 큰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각종 부정적인 뉴스들 속에서 동 다큐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이 릴렉스 되며 간접적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찾아 시청자들의 공감대가 크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찬재부위원장)	각박한 사회에 희망을 주는 '작은 영웅'들을 발굴하여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더 발전하겠습니다.			
보도	4월은 과학의 달로서 과학기술 진흥 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등에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난 4/21은 과학의 날로서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뉴스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음. 과학 꿈나무 육성, 전 국민의 과학화,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차원에서 연합뉴스tv가 각종 행사를 취재하고,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보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과학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행사나 캠페인 등 뉴스는 찾아볼 수 없어 뉴스 내용 편성 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문해주위원)	지난 13일 '출근길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발족한 과학기술특별봉사단의 오승원 본부장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노력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보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3/24. 05:00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무녕왕릉에 대한 강의: 강의를 생생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화장실도 못가게 막을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관련부서와 협의해 휴일 특집편성으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문화 강의였다. 나온 시청자 패널도 알만한 방송인(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등 초청)들의 순간 순간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강연자의 질문등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다. 4/10채널 A: 05:30 채널A스페셜: 문화유산 탐방기에서 유럽 미술(조각)에 대한 설명과 연역 등에 대한 시도 역시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처럼 색다른 맛이 있었음. 연합뉴스TV에서는 한국의 고대 문화 등을 기획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연합뉴스TV도 시도해볼만한 기획이라고 생각.(정의식위원)				
기타	지난 4월7일 보궐선거 방송에서 후보들의 약력과 간단한 공약을 화면 하단에 보여주어서 다른 지역의 여러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송 내용은 아니지만 연합뉴스TV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성인웹툰 광고나 여성의 몸을 소재로 만든 다이어트 광고가 눈에 띄니다.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많은 기사를 보면서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 청소년에게 권장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성인웹툰 광고나 부적절한 표현의 의료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광고는 성인인증을 한 후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현숙위원)	홈페이지 광고의 경우 연합뉴스TV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를 통하여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 성인광고, 혐오감을 주는 소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광고주가 광고 소재항목을 변경하여 등록 하고 있는 관계로 다소 부적절한 소재가 간혹 노출되고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 클린소재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4월14일 우리나라 3월 일자리 현황을 정부 발표자료를 기초로 보도하였음, 취업자수는 1년전보다 31만4000명 증가했고 작년 3월이후 처음 증가세,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효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의 기저효과가 주요인, 아쉬운 점은 고용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보도하여 현황을 정	일단 3월 고용동향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처음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팩트였기에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방적 발표만을 담지 않기 위해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오른 점과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인터뷰를 담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확하게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 같은 기간 실업자도 3.6만명 증가, 구직 단념자는 총 68.4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2만명 증가하여 구직자 양극화 현상 심화, 임시직 근로자 20.6만명, 일용직 4.1만명 증가하였고, 제조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2.8만명) 하는 등 소위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일자리는 국민 경제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비록 정부 발표 자료에 기초한 스트레이트성 보도이더라도 "이러한 점은 고려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내용도 함께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유환익위원)</p>	<p>대면서비스업과 자영업 일자리의 여전한 감소세를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2분 이내인 뉴스 리포트에 충분한 내용을 담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나 다음 고용동향 발표 때부터는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하여 일자리 개선상황의 한계를 좀더 반영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일자리 사정이 진짜 나아졌는지 기획 리포트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p>			
<p>보도</p>	<p>문화예술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4월에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었는데 선거과정이나 선거후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에도 후보자나 당선자들의 문화예술관련 정책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은 몹시 아쉬운 대목이다. 다음 달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기획과 취재를 통해 수준 높고 유익한 기사를 많이 보게 되기를 바라며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도 더욱 많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말씀드린다.(정경모위원)</p>	<p>재보선 이후 문화예술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 보겠습니다.</p>	○		
<p>보도</p>	<p>4월18일 저녁 7시30분 연합뉴스TV 스페셜로 '한국기업 발등의 불 ESG에 대비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에서는 ESG 각 분야별 개념정의에서부터, 우리기업들의 ESG 대응과 관련한 현주소를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한국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미래 준비</p>	<p>&lt;연합뉴스TV 스페셜&gt; 송출시 좌상단에 프로그램명과 해당 편부제가 20초 간격으로 전환되어 시청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방송 전 예고편을 제작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74회 &lt;연합뉴스TV스페셜 - 한국 기업 '발등의 불', ESG에 대비하라&gt; 경우 예고편이 총 3회 편성되어</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부내용이 아주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홍보입니다. 방송직전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로만 표기가 되어 시청자들이 연합뉴스TV스페셜 주제가 ESG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연합뉴스TV 스페셜과 같은 정책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안내에 부제목을 함께 달아 주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특별방송의 홍보확대는 물론 시청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추문갑위원)	송출됐습니다.			
보도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선거방송, 개표방송을 지켜보면서 지상파 3사나 YTN 등 타 방송사와 비교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느껴졌다. 먼저 개표방송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화면의 입체성, 역동성 부족이었다. 똑같은 개표 상황을 여러 방송사가 동시에 보도하는 만큼 시청자들은 좀 더 흥미롭고 눈에 띄는 채널을 선택해 시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연합뉴스TV가 보여준 후보자 사진 옆에 단순히 득표율만 표시되는 평면적 화면이나, 후보자 얼굴을 합성한 사람이 뛰는 모습 등은 다소 식상해보였다. 차별화된 스튜디오 구성이나, 입체적인 개표방송 화면, 인지도 높은 패널의 초대 등은 모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 지상파 3사 등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선거방송을 만들어야 했을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지난 선거 때보다는 더 나은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꼭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를 통해 타 방송사와	선거방송은 각 방송사마다 첨단 장비가 선보이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도 선거 석달전부터 준비하였으나, 기술적, 장비적인 부분에서는 지상파와 YTN에 비해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의 경험치가 축적되며 우리 시청층에 맞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래픽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보다 탄실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차별화하는 방법을 다음 선거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김세한 위원)				
보도	전국 도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보행자 안전 우선"이란 내용으로 4월 17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는 도심 속 안전속도 5030에 관하여 내용이 아주 잘 전달이 되어 좋았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재연하여 위험을 알리고 화면 하단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어 시청자입장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좋았습니다.(천경숙위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